

### 공동체 소식



### 연중제10주일

하느님,  
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 
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.  
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 
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

#### 6월은 '예수 성심 성월'입니다.

- 안내: 예수 성심 성월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. 예수 성심의 사랑은 성체성사로 잘 드러납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,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,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여야겠습니다.
- 기도: 6월 중에 봉헌되는 모든 미사의 파견에 식 전에 '예수 성심 성월 기도'를 바치겠습니다. (매일미사 3쪽 참고)

#### 다음 주일은 '아버지의 날'입니다.

- 안내: 예수님께서서는 '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.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,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.'(마태23,9)라고 하셨듯이, 이 세상 아버지들의 위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. 세상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느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.

#### 미국 교포사목 청주교구 사제단 모임에 수고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.

####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.

#### 캔사스대교구 'Archbishop's Call to Share'에 많은 참여바랍니다.

- 내용 :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.
- 참여방법 : 교구홈페이지 메뉴-RESPONDING(<https://www.calltoshare.org/>)

#### 전례 성가

	시작	예물	성체	파견
금 주	2	219	160	201
차 주	431	511	169	68

#### 주일미사 복사

	항복사	시중복사
금 주	이원준 요한	차민서 임마누엘
차 주	정예찬 미카엘	정예진 한나

####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

	해설자	제1독서
		제2독서
금 주	박태주 로마노	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
차 주	김주연 세실리아	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

#### 애찬 봉사자

금 주	김경희, 김인자, 안혜진
차 주	김명희, 한춘희, 최선윤

#### 헌금 봉사자

금 주	감영진 라파엘, 조진환 베드로
차 주	김대연 요셉, 홍순익 마르티노

#### 우리들의 정성

	영성체	헌금	교무금
6/3	27 명	150 달러	600 달러
이우석, 이영민, 김진미 (총 3 세대)			

#### +미사시간

주 일: 11:00 AM  
 화/수요일: 7:30 PM  
 목 요 일: 10:00 AM (교육관)

#### +고해성사

매 미사 30분전

#### +예비자교리

주일 10:00 AM

#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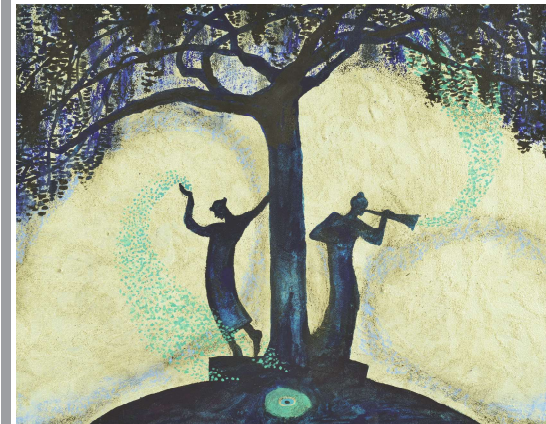
**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**  
 9130 Pflumm Rd. Lenexa, KS 66215  
 (913)563-7896 [www.kckcatholic.org](http://www.kckcatholic.org)  
 나자렛 교육관: 8901 Haskins St. Lenexa, KS 66215  
 주보 편집 : 조진환 베드로 [jinhwan.jo@gmail.com](mailto:jinhwan.jo@gmail.com)

주임신부 **홍진 베드로**  
 M: 913.912.2574  
[hongjhin@daum.net](mailto:hongjhin@daum.net)

회 장 **이우석 프란치스코**  
 M: 816.616.0033

재 무 **김병철 베네딕도**  
 M: 913.710.0770

### 오늘의 전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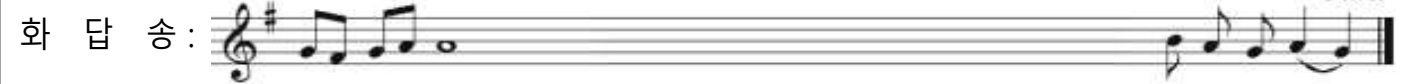
오늘은 연중 제10주일입니다. 하느님께서 성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악령의 지배에서 구출하셨습니다. 하느님께서 믿음의 무기로 우리를 도와주시어, 우리가 날마다 악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파스카 승리에 참여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.

### 그림 묵상

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지만, 어떤 나무보다 커져 우리에게 평안한 그늘과 안식을 줍니다. 저절로 자라나는 나무나 곡식의 신비를 생각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한없음을 눈물겨워 합니다.

정미연 소화데레사 | 화가

제 1 독 서 : 창세기의 말씀입니다. 3,9-15  
 <나는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라.>



- ◎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.
- 깊은 구렁 속에서, 주님, 당신께 부르짖나이다. 주님,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. 애원하는 제 소리에,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. ◎
- 주님,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, 주님,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?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,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. ◎
- 나 주님께 바라네.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,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.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.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,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. ◎
-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,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.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,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. ◎

제 2 독 서 :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. 4,13—5,1  
 <믿습니다. 그러므로 말합니다.>

- 복음환호송 : ◎ 알렐루야.  
 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.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.  
 ◎ 알렐루야.

복 음 :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3,20-35  
 <사탄은 끝장이 난다.>

### ★ 생명의 말씀

## 나의 삶 속에서,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스며 들었는지를 곰곰이 헤아리면, 내 마음은 훈훈해지고 더러운 영은 나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



사목 생활을 40년 이상을 해온 저에게는, 가끔 저를 고 민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해성사를 주는 과 정에서입니다.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같은 내용 을 또다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. 고백을 듣는 저도 가벼 운 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, 그 순간 습관적으 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. 그것은 '이분이 주님의 용서 와 사랑을 맘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' 하는 청원입니다.

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. '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형제님 혹은 자 매님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믿 습니까?' 하고 묻습니다. 그러면 대부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. 믿는다는 그분의 음성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끼며 보속과 함께 사죄경을 바치면서 끝납니다. 사실 나를 포 함해서 믿는 우리에게,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끼고 믿는 만큼 그 용서와 사랑이 나의 맘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. 살아 움직이는 만큼 나는 용 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.

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두고, 베엘제불이 들렸고 마 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는 율법학자들 을 향해 격한 음성으로 훈시를 하신 후, 다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. "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사람들이 짓 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 받을 것이다.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 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."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? 여러 지식을 동원해서 묵 상을 해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것 은,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용서를 믿지 못하면 용서받고 사 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. 용서를 믿지 못하는데 어 떻게 용서받은 마음이 들겠습니까? 나를 향한 주님의 사 랑을 믿지 못한다면,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마음 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? 믿지 못하는 그 자체로서 용서와

사랑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용 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한다는 성령을 모독하 는 죄의 내용은,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인데, 이 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로 그 '더 러운 영'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 더러운 '영'에 걸려들면 죄에 매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'더러운 영'의 실체는 근 본적으로 나를 향해 끝없이 흐르는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 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이며 베엘제불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한시라도 이에 걸려들지 않도록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. 이에 가장 좋은 길은,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 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곰곰이 헤아 리고 곱씹는 기도의 시간을 틈틈이 갖는 것입니다. 그러면 내 마음은 훈훈해집니다. 더러운 영은, 주님의 용서와 사랑 에 감싸여 있는 나를 먼 데서 노리고 있을 뿐 더 이상 덤벼 들지 못합니다.

- 홍성만 미카엘 신부 |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

### ★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



함께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'이해'입니다.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은 '구분', '구별', 그리고 비난입니다.

함께 좋은 답을 찾으려는 이들과 내 답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들

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?

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.(마르 3,26)

임의준 신부 |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

### ★ 말씀의 이삭

## 하느님, 제 사랑 받으셨죠?

지난해 청년 성서 모임을 통해 창세기와 탈출기를 함께 공 부할 수 있었습니다. 천주교 방송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서 공부를 했습니다. 같 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기에 비슷한 고민에 서로 공감하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 저는 인간관계의 허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.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에서 내가 상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, 그 관계가 끝나버렸을 때 드는 허무함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 느 순간부터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시간과 정성의 낭비라 여겨졌고,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.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 하여도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물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슬펐기에,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된 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신부님께서서는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"당신이 상대에게 주었던 사랑이 사라 졌다고 생각하나요?" "네, 모두 사라졌습니다." 저는 대답했습 니다. 신부님께서서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. "아닙니다. 사라지지 않았어요. 마리아 자매님 이 준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 전달되었습니다. 상대방이 그 사랑과 마음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은 그 상대를 거쳐 하느님께 그대로 전달되었 고 하느님은 이미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."

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. 제가 손해를 보 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, 그 사랑을 주님께서 다 받 으셨다니 정말 기뻐했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저 에게도 다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. 물론 지금 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설픈 계산을 하게 됩니다. '내가 너에 게 이만큼을 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을 돌려줘야 해' 하는 마 음이 자연스럽게 들곤 합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'내가 너에 게 더 많은 것을 줄 거야. 네가 이것을 나에게 돌려 주지 않는 다 해도 나는 상처받을까 두렵지 않아. 하느님께서 나에게 돌려 주실 거니까'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것도 마음을 나누는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내 어주는 것에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. 마태오 복음서 제22장에 서는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대표하는 두 가지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. 첫 번째는 "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." 두 번째는 "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"라는 것입니다. 하느님 을 사랑하고,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분 명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내려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상처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, 손해를 볼까 걱정할 필 요도 없습니다. 오늘도 저는 하느님께 묻곤 합니다. "하느 님, 제 사랑 잘 받으셨죠? 사랑합니다."

- 최희 마리아 | 아나운서

### ★ 교리상식



#### 성체분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

성체분배자는 정규 성체분배자(주교, 사제, 부제)와 비정규 성체분배자(제대 위에서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종직 을 받은 시종자와 성체분배권을 위임받은 평신도, 교회법 제910조 2항, 제230조 3항)로 나뉩니다. 성체분배자는 사목자를 돕는 봉사자 일 뿐입니다.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성체를 나눠준다 해서 주님의 거룩한 몸이 품위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.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주님의 몸이지 그것을 분배하는 개인이 아닙니다.

글: 「교회상식 속풀이」 | 바오로말발행